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김미은



삼막한 도심에 공원이 있다는 것은 축복받은 일이다. 그래서 회사 인근, 옛 한국은행 광주본점 자리에 위치한 금남공원을 지난 때마다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금짜라기 땅에 건물을 올리는 대신 시민들을 위한 공원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건물'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줬던 그가 필자가 살고 있는 곳에 또 어떤 행복을 전해줄 지 기대가 컸다.

어번폴리, 당신의 평가는?

반재 성과물에 대한 관심도도 높았다. 지난 1일 모습을 드러낸 어번폴리는 광주시의 기대대로 확실한 도심의 풍경을 바꿔 놓았다.

반면 주변과 어우러지지 못하고 고개를 가웃거리게 하는 작품들도 있었다.

이 작품을 광주 총장으로 축제와 관련 있는 조형물로 생각하고 축제가 끝나면 철거될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

였다. 영구 조형물이라는 설명에 '숨이 막힌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들도 있었다.

황금동 콜박스 사거리에 위치한 조형물은 주변 환경이나 통행 여부와 상관 없이 독자청칭이다. 휠체어를 타는 지인은 바닥에 너무 높게 울퉁불퉁한 턱을 만들어 통행이 불편하다는 하소연을 했다.

결과 사고와 작품 훼손을 우려해 작품에 교통 통제 때 사용하는 빨간 깎갈봉을 세워둔 상태다. 분명 답사를 했을텐데 왜 이런 결과물이 나왔을까 아쉬운 대목이다.

환경 무시한 작품 아쉬워

솔직히 '건축계 거장'이라는 수식어는 감히 평가를 할 수 없게 만든다. 문제 제기하는 이들을 심미안이 부족한 사람들라고 폄하하는 일부 목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도시의 주인공은 건물이나 조형물도 아니고, 사람이다. 그리고 광주를 가장 잘 아는 이는 바로 광주 사람들이다.

시의 계획대로 10년간 100개의 폴리가 들어설 경우 광주는 전혀 다른 '얼굴'을 갖게 된다. 하지만 외형적 성과에만 급급해 충분한 소통과 논의 과정 없이 다급하게 일을 추진한다면 금남로 조각상이나 루미나리에처럼 애물단지 조형물들이 들어설 지도 모른다.

우리가 에이스 페어에 주목하는 것은 미래에 에이스 페어에 주목하는 것은 문화콘텐츠와 IT 최첨단 기술의 융합산업은 21세기의 대표적인 성장동력이다.

시설

'에이스 페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올해로 6회째를 맞은 국내 유일의 문화콘텐츠 박람회인 '에이스 페어(국제문화창의산업전)'가 아시아 대표 문화콘텐츠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1회 때의 6개국, 59개사 참가에 수출상담액 70만 달러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한 것이다.

우리가 에이스 페어에 주목하는 것은 미래에 에이스 페어에 주목하는 것은 문화콘텐츠와 IT 최첨단 기술의 융합산업은 21세기의 대표적인 성장동력이다.

따라서 에이스 페어가 지역 미래 성장동력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에이스 페어는 오는 2014년 문화전당에 완공되면 기대 이상의 시너지 효과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홍보 부족 등으로 일반인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한 점은 아쉽다.

에이스 페어가 세계 최대의 가전 박람회인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IFA)나 로스앤젤레스의 국제가전제품 박람회(CES)와 같은 국제적인 박람회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우리가 에이스 페어에 주목하는 것은 미래에 에이스 페어에 주목하는 것은 문화콘텐츠와 IT 최첨단 기술의 융합산업은 21세기의 대표적인 성장동력이다.

반값 등록금 연제까지 공염불만 할 건가

광주·전남지역 대학생과 시민단체들의 '반값 등록금'을 위한 학내 집회와 거리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공부하고 고민해야 할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거 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공부하고 고민해야 할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거 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공부하고 고민해야 할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거 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반값 등록금은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 때 약속으로 내세워 불을 지폈다.

반값 등록금은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 때 약속으로 내세워 불을 지폈다.

반값 등록금은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 때 약속으로 내세워 불을 지폈다.

반값 등록금은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 때 약속으로 내세워 불을 지폈다.

은편칼럼



박홍근

우리나라의 답사문화를 주도한 유홍준 교수의 책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서문에 이런 글이 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가 박물관이다."

양림동은 광주 근대건축·역사박물관이다

로우 홀(1927), 수피아 옛 강당(1935)과 전통주택인 이장우 가옥(1899), 최승효 가옥(1920) 등에는 오랜 역사의 기억들이 세월의 쉼 속에 녹아 있다.

이런 자산은 멋진 골목길과 좁은 도로, 넓은 마당과 함께하며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양림동에 2008년부터 광주시에서는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사업이란 것을 추진하여 1차 사업인 순교자 기념공원 조성사업(선교사 묘역정비 및 우월선 사택 보수 등)을 끝냈고, 2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결과물과 추진상황으로 판단하면 '역사문화마을'이라는 가치의 중요성은 공유하는 것 같은데 이를 '관광자원화(?)'하는 접근 방법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인가에 대한 탐문형성이 부족하고, 들뜬 설계와 시공발주 방식이 비문화적인 토건국가적·행정편의적으로 집행되고, 셋째는 시행기관과 감독기관 간의 연속성·전문성·지속가능성의 부재 등의 문제는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종합 컨트roller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광주비엔날레 준비에 총감독이 있는 것처럼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을 가꾸는데 총감독(MP, Master Planner)이 있어야 한다.

둘째, 담당 공무원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공무원의 능력은 훌륭한데도 그런데 그 업무에 대해 알만하면 이동은 한

그런데 그 업무에 대해 알만하면 이동은 한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신는 코너입니다.

기고



박용수

수시 원서 접수 결과 경쟁률이 예전에 비해 현격하게 올라간 것이 이번 입시의 특징이다. 150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학과가 적지 않은 등 치열한 대학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대학 입시 추천서 유감

감추어져 있다. 추천서를 가지고 오는 학생은 결혼 청첩장을 들고서 주례를 부탁하는 것처럼 반가운 일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 학생이 한둘이 아니고, 게다가 한 학생에게 여러 학교의 지원서를 쓰는 등, 하루에 몇 개의 추천서를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수업에 부실하게 된다.

또한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기록하려고 대학 측에서 요구하지만 추천서 개념 자체가 긍정의 글이기 때문에 부정인 사실이

쓰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게라도 마음을 다잡고 추천서를 마주하면 질문지 앞에서 또 한 번 길게 호흡을 가다듬어야 한다.

질지 않는 기간 40여 명의 학생을 상대한 교사로서 그 학생에게 특별하게 애정을 쏟았다 할지라도 추천서의 분량을 채우는 일이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니다.

많은 추천서를 쓰고 난 교사들은 자신을 추천서 쓰는 기계라고 자파하는 한편 '이런 추천서를 대학에서는 면접용 외에 진정 당락을 결정하는데 얼마나 참고할까' 하고 의

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씁쓸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도 부족한 시간, 교사들은 추천서 앞에서 방황하고 고민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지 않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집약한 생활기록부를 참고하면 된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대학 측에서 사정관을 직접 파견하여 학생들과 면접을 통해 자신들이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추천이란 어디까지나 추천 대상을 두고 추천을 받은 사람과 추천하는 사람이 서로 인연이 있고 신뢰한다는 전제하에 실시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광주동신여고 교사〉

농기계 등화장치 통일, 빈번한 교통사고 예방해야

농촌 지역의 도로변에는 농기계가 많이 다닌다. 종종 고향에 내려가 보면 야간에 운전할 때 신경이 많이 쓰인다.

때문에 지금 농촌에서는 이양기, 콤팩트, 경운기와 같은 농기계에 등화 장치를 꼭 달고 점등을 해서 운전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 등화장치가 장착 위치나 빛의 밝기 등이 전부 다르다.

모든 자동차는 브레이크를 걸면 차 뒤에 빨간색 등이 들어오도록 돼있다.

이렇듯 흰가 통일된 약속과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농기계 등화는 농기계 만드는 회사 맘대로, 그걸 부착하는 농민 맘대로여서

크기, 모양, 등불의 색깔도 다르다.

그러다 보니 농촌 도로를 달리는 일반 차량들의 운전자들이 그 불빛을 보고 구분을 하기가 힘들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부착 위치와 크기, 색깔, 빛의 밝기 등 규정을 만들어 반드시 그 기준에 맞도록 의무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시의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때 농촌 도로에서 농기계를 만날 경우 시행하고, 농기계에 달려있는 경광등의 존재와 필요성, 주의 점등도 함께 시험에 내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영희·광주시 서구 양3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等鼓

"빛보다 빨리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굳이 빛보다 빨리 달려봐야 모자란 벗겨질 뿐,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미국의 코미디영화 감독 우디 앨런(Woody Allen)의 말이다. 빛이 가장 빠르다는 확신, 빛보다 빠른 무엇이 있더라도 사람들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나름의 판단이 담겨 있다.

하지만, 코미디 감독의 얘기가 결국엔 감미로 끝날 가능성이 컸다.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의 과학자들이 최근 빛보다 빠른 물질을 발견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지난 3년간 중성미자(뉴트리노)라고 불리는 물질을 진공 속에서 732km의 거리를 달리게 한 결과, 빛의 속도보다 60나노초(0.0000006초)가 더 빨랐다고 밝혔다.

사실이라면, '빛의 속도는 그 어떤 속도도 넘을 수 없는 궁극의 속도'가 절대속도라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금이 가는 셈이다.

빛의 속도를 넘어서면 시간여행이 가능하고,

물리법칙으로는 시간여행이 불가능함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 과학계의 정설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중성미자를 추진력으로 사용하는 타임머신의 출현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엔 미래엔 갔다가 되돌아올 수만 있다면, 인류의 신기원이 펼쳐질 것이다. "시간여행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별로 실용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세계적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의 예언이 맞을 지도 관심사다.

하지만, 빛의 속도를 '절대 속도'로 생각해 온 기존의 가설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명명된 '상대성 이론' 역시 인간세상을 해석하고 예측하기 위해 만들어진 여러 이론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

빛의 속도보다 빠른 물질이 존재하든, 기존의 절대속도가 잘못될 것이든 둘 중의 하나가 사실이라면 인류역사는 종대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홍행기 정경부 차장 redplane@kwangju.co.kr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subscription rates, and office location.